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의 기독교적 조명¹⁾

정희영 *

논문 초록

현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고츠키 이론은 사회 문화적 이론으로, 그의 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세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비고츠키 이론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발달과 사회적 맥락과의 밀접한 관계로서, 모든 인간의 정신 활동의 형태들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학습과 근접발달지대로서 어린이의 발달을 측정할 때 실제적인 발달 수준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의 잠재적 발달의 수준이 중요하다. 셋째, 정신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언어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국면으로부터 개인적인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형태의 인지를 이루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고츠키 이론의 기독교 유아교육에의 적용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환경이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근접발달지대의 개념은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제시한다. 셋째, 찬양과 기도 등 언어를 활용한 기독교 유아교육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결정된다고 하는 비고츠키의 이론에는 무신론적인 생각이 깔려있으며, 발달을 일종의 사회화로 파악하여 어린이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유아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고츠키의 이론은 계속적으로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분석, 조명되어야 한다.

핵심주제어: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 정신활동, 근접발달지대, 조명

1) 이 논문은 1999년 총신논총에 게재된 ‘비고츠키 사회 문화적 이론의 기독교 유아교육에의 적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II. 비고츠키 이론의 사상적 배경****III.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IV.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의 기독교적 조명****V. 결론****I. 서론**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이 1960년대 이후 발달심리학계를 지배한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론으로서 비고츠키(Vygotsky)의 이론이 있다. 피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으로 교육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고츠키는 사회 문화이론으로 현대의 교육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왔으며, 비고츠키의 이론은 이러한 경향에 원동력이 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피아제 중심의 발달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발달의 사회적 기원을 비고츠키가 명쾌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박형준, 1999: 100). 피아제의 이론은 인지발달의 전제가 생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의 설명이며 주로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와 인지 또는 발달의 사회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고츠키는 생물학적 성숙보다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지발달 분야에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툴먼(Toulmin)은 비고츠키를 심리학의 모차르트라고 칭송하고 있다(박형준, 1999: 100). 이러한 특징을 지닌 비고츠키의 이론은 전통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 안고 있는 문제와 아동중심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Berk & Winsler, 1995: 154). 또한 사회와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박형준, 1999: 116). 이와 같이 비고츠키의 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서

구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비고츠키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그의 이론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하였다. 서구에서는 주로 1970년대 후반에 그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한은숙, 1996: 47-55) 그 내용은 대개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반 교육계에서는 비고츠키 이론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독교교육 분야에서의 비고츠키 이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고츠키 이론에 대한 기독교교육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II. 비고츠키 이론의 사상적 배경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학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와 정신세계의 본성과 원리를 규명해 낸 것이며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독교인 학자들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 학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비고츠키 이론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비고츠키 이론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체계는 무엇인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즉 그의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비고츠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인간은 사회적(social), 문화적(cultural)세계의 산물(Berk & Winsler, 1995: 13)”이라는 주장을 이해해야만 한다. 비고츠키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는 어린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관습적 맥락들에 대한 이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비고츠키의 발달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접근(sociocultural)은 마르크스 주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비고츠키의 마르크스(Marx)의 원리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깊었다. 그가 얼마나 마르크스의 이론에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 그의 동료였던 루리아(Luria)는 “비고츠키는 우리를 중 선도적인 마르크스 이론가였으며, 마르크스의 분석 방법이 우리의 코스를 정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Wertsch, 1998: 21)”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비고츠키

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마르크스의 이론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고츠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고츠키는 그가 몸담고 있던 소련을 위해 소련의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를 소련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일치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합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맡았었기 때문이다(Berk & Winsler, 1995: 17)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비고츠키의 이론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고찰과 비고츠키가 살았던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고찰

마르크스의 사상은 노동 가치설, 유물 변증법, 유물사관, 그리고 국가관 등의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는 매우 방대한 일이며 이 논문이 마르크스에 대한 논문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비고츠키의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유물사관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법률관계와 국가형태는 그 자체에서 혹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물리적 생활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유물사관의 개념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최일운, 1972: 227-228) 첫째, 역사의 원동력은 물질적 생산력과 그 생산력에서 벗어지는 생산관계라고 본다. 만일 생산력의 발달이 그에 적합한 생산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물질적 생산력은 점차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회적인 여러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경제적인 토대가 실재적인 것으로 그것의 변동에 따라서 사회적 상부구조가 변하게 되며 여기에 혁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들의 사상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인 여러 관계를 맺게 되며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제자였던 엥겔스는 그의 논문 ‘사적 유물론에 대하여’에서 유물사관이란 생산력 및 생산에 따르는 생산물의 교환이 모든 사회적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마르크스 유물론의 요지를 말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구조 위에 정치적, 법률적 구조가 서고 그 위에 다시 사회적 인 의식형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인 인간의 정신형태는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최일운, 1972: 228)”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식이 그들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사람들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물질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변증법이라는 발전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로, 노예사회에서 봉건 사회로,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동일한 법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러 사회의 물질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의 요인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해소되어 모순없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은 그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일정한 단계에서 생산력과 생산에 대한 여러 관계에 모순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역사의 원동력은 물질(matter)이며 그 물질에 의해 사회는 구성되며 인간의 존재는 물질에 의해 구성된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마르크스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물질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2. 비고츠키 이론의 사회 문화적 배경

비고츠키 이론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과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비고츠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였던 블론스키(Blonsky)와 쉐왈(Thurnwal)과 레비-부르홀(Levy-Bruhl) 등을 들 수 있다. 비고츠키는 블론스키의 행동은 그 행동의 역사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일찍이 받아들였으며 서구 유럽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쉐왈과 레비-부르홀의 지적 활동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여 자신도 지적 발달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루리아(Luria)와 함께 1930년에 ‘행동의 역사에 관한 연구’(Studies in the History of Behavior)라는 책을 출판하게 한다. 이와 같은 역

사에 대한 강조는 그 당시 소련의 언어학계에도 일반적인 일로서 언어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었으며 언어는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정신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작용에서 언급되는데 비고츠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고츠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코로니로브(Kornilov)이었다. 비고츠키가 모스크바(Moscow) 대학의 중견학자로서 소속되기 1년 전에 이 학교의 학장이었던 첼파노프(Chelpanov)가 관념론자로 분류되면서 그는 이 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 대신 마르크스주의적 심리학을 발전시키는데 헌신적인 인물이었던 코로니로브가 학장자리를 승계받게 된다. 코로니로브의 학장승계는 학자들이 심리학을 연구할 때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연구해야 할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니로브와 함께 일했던 비고츠키가 마르크스의 원리를 심리학에 적용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Wertsch, 1998: 20)

비고츠키가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해 그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했다고 하는 생각은 그가 살았던 격동의 1920년대의 사회 상황의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입증된다. 1922년 내란이 끝난 후의 소련은 사회, 정치적으로 놀랄만한 격변과 열광, 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마르크스 와 레닌주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것을 확신하는 비고츠키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고츠키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몰입하게 된다(Wertsch, 1998: 20)

III.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

보드로바와 레옹(E. Bodrova & D. J. Leong, 1998:30)는 비고츠키 이론의 기본 원리를 유아들의 지식 구성능력, 발달과 사회적 맥락과의 밀접한 관계, 학습의 발달 주도, 그리고 언어의 정신 발달에 있어서의 핵심적 역할 등이라고 보았다. 베를츠(Wertsch)는 비고츠키의 이론적 골격의 핵심은 첫째, 발생적 접근 방법에 대한 신뢰, 둘째, 개인의 고등정신 과정의 사회적 기원, 셋째, 기호나 도구의 이해를 통한 정신과정의 이해 등이라고 주장하였다(Wertsch, 1998: 24-25) 버크(Berk)와 윈슬러(Winsler)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은 인지는 사회적이

며 사회 문화적 세계와 개인의 정신 기능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체는 언어라고 보는 관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Berk & Winsler, 1995: 37)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발달과 사회적 맥락과의 밀접한 관계, 학습과 근접 발달 시대, 그리고 정신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의 중요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발달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비고츠키는 앞장의 사상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인간의 모든 특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식은 인간이 속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며, 모든 인간의 정신 활동의 형태들은 바로 지식의 근원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비고츠키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았다. 다음의 비고츠키의 견해에 대한 인용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유아의 문화적 발달에서는 어떤 기능이라도 두 번 또는 두 수준에 걸쳐 나타난다. 첫째, 사회적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심리적 수준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 심리적인 범주로서, 그 후에는 내부 심리적인 범주로서 유아의 내부에서 나타난다. 이 현상은 자발적인 주의, 논리적 기억, 개념의 형성, 의지력의 발달 등에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하나의 범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들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은 유전학적으로 모든 수준 높은 기능들과 그들의 상호관계들에 기초가 된다(Berk & Winsler, 1995: 163)

이와 같이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비고츠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다. 어린이들의 보존 개념의 획득 시기를 볼 때 서구 사회의 어린이들과 비서구 사회나 부족사회 어린이들의 보존 개념 획득의 시기가 매우 차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농경 부락지에 사는 나이지리아의 하우스(Hausa)족들은 자녀들을 거의 학교에 보내지 않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11세나 그 이후에도 수, 길이, 액체에 대한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Berk & Winsler, 1995: 31) 보존성을 이해하는 연령에 있어서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족의 어린이들과 서구 문화권에 사는 어린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보존성에 대한 사고 방법을 증진시키는 매일의 활동 방법의 유무에서 기인한다. 서구 사회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공평함이란 자료의 동등한 분배라고 배우며 이를 위해 크레용이나 사탕들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기회를 접하므로 서구 사회의 어린이들은 같은 분량이 다른 방법으로 조절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며 이를 통해 보존의 개념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경험들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는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족의 어린이들은 서구 문화에서 기대하는 연령에 보존의 개념을 깨닫기가 어렵다. 이는 어린이들의 인지적인 발달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사회가 제공하는 활동에 의해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의 사고의 발달은 특정한 상황과 문화적 조건의 산물임을 말한다.

어린이들의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의 형태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제와 주위환경 조건들, 사회적 참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Berk & Winsler, 1995: 28-37) 어린이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대에 의해 주어진 인지적 과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 예를 들면, 중산층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교수적 질문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유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조건화되었던 것이 교실의 상황에 적용되어 그 자녀들이 교실의 상황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사회, 문화적 맥락의 다른 형태로서 과제와 주위의 환경을 들 수 있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인지는 주어진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특정한 활동들과 사회적 경험들에서 얻어진 의미로부터 생기는 것이다(Berk & Winsler, 1995: 34)” 예를 들면, 특정한 지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어떤 게임들과 사물들과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과제를 풀 때 위와 같은 경험들이 매우 제한적이며 잘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보다 그 과제를 보다 잘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상황(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인지를 발달시켜나간다는 것이

다.

사회적 참여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 비고츠키는 어린이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어떤 과제에 도전하면서 그들의 사회에서 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사고와 행동을 배운다고 보고 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접하게 되는 성숙한 협력자들의 도움말은 어린이들의 사고의 일부분이 되며 자신들의 행동을 이끌고 가는 전략과 기술들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인지적인 발달을 꾀하게 된다.

2. 학습과 근접 발달 지대

근접 발달 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는 비고츠키가 어린이의 지적 능력의 평가와 교수활동의 평가를 다루려는 노력에서 소개한 개념으로서 “학습과 발달 사이의 관계를 개념짓는 방법이다(Bodrova & Leong, 1998: 72)” 비고츠키에 의하면 근접 발달 지대란 “아동이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더 능력있는 동료와의 협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더 높은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Wertsch, 1998: 81)”로서 정의된다.

비고츠키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정신 연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어린이의 실제적인 발달 수준만이 고려되었으나 잠재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실제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발달의 잠재적 수준이 실제적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점에 대하여 비고츠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두 아동을 조사해서, 둘의 정신연령이 7세로 결정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이것은 두 아동이 7세에 해당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아동에게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을 해결하도록 시도할 때, 그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예컨대, 유도 질문이나 시범과 예를 봄으로서 이들 중 한 아동은 실제적 발달 수준 보다 2년 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아동은단지 실제적 발달 수준보다 약 반년 위의 문제를 해결한다(Wertsch, 1998: 82)

비고츠키는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두 어린이의 정신 발달은 동일하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독립적인 활동에서 보면 그들은 동일한 수준이지만, 그들의 잠재적 발달로 볼 때는 꽤 다르다. 우리는 아동이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근접발달지대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도움으로 우리는 오늘날 완성된 발달과정 및 이미 행해졌거나 결론이 내려진 순환과정, 또는 완성된 성숙의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성숙이나 발달의 과정들을 파악할 수 있다(Wertsch, 1998: 8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고츠키는 어린이의 발달을 측정할 때 실제적인 발달 수준 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의 잠재적 발달의 수준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고츠키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검사할 때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과 그 어린이가 학습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rk & Winsler, 1995: 44)

근접 발달 지대는 학습과 인지 발달이 활동적으로 일어나는 민감한 지역이다. 어린이들은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발달 과정에 있는 자신의 정신적 기능들을 자극함으로써 발달을 꾀한다. 따라서 교수활동은 어린이들이 준비가 된 것을 가르치거나 그들이 이미 획득한 정신 기능들을 사용하는 과제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근접발달지대 안에 있거나 그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과제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초보적인 인지적 형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근접 발달 지대에서의 교수 활동은 어린이의 지적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접 발달 지대에서의 교수는 “아동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발달에서 전반적인 내적 과정들을 일깨워서 활기를 준다.……교수는 발달에 선행할 때만 효과적이다. 그 때 그것은 성숙의 단계에 있는 그리고 근접 발달 지대에 놓여 있는 전반적 기능들에 생명을 일깨우고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교수는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Wertsch, 1998: 85).”

근접 발달 지대 내에서의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비계 설정(scaffolding)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비고츠키에 의해 처음 사

용된 것은 아니며 여러 학자들이 개별지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판별하기 위해 소개된 용어로서 건축공사에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는 인부들이 높은 곳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세우는 장대와 두꺼운 판자 또는 철판으로 만든 발판을 말한다. 건축물이 올라감에 따라 발판도 차츰 차츰 높여가며 건축하게 된다. 성인의 안내와 도움이 어린이의 도움을 주는 발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어린이의 발달에 따라 성인의 안내와 도움도 점차 그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비계설정을 ‘단계적 지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효과적인 비계 설정을 위해 공동 문제 해결, 상호 주관성, 따뜻함과 반응, 어린이를 근접 발달 지역에 머물게 하기, 자기-조절 증진시키기 등의 구성 요소와 목표들이 있다(Berk & Winsler, 1995: 47-50)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공동문제 해결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흥미있고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의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인지의 개념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효과적인 비계설정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상호 주관성이다. 이는 각 참여자가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 맞추어 조절함으로써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화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는 인지적 발달을 꾀하게 된다.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세 번째 요소는 따뜻함과 반응이다. 어린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인들의 명랑하고 따뜻한 반응은 어린이들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게 되며 이는 어린이들의 문제에 대한 집중과 도전적인 태도를 최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나 어린이들의 주변에 있는 성인들의 따뜻하고 언어적인 칭찬은 어린이의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를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때 도전적인 수준의 과제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는 근접 발달 지대에 놓여 있는 초보적 단계의 인지적인 형태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성인들은 어린이들의 요구에 맞도록 교수의 양을 조절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또 다른 목표는 자기-조절 증진하기이다. 자기-조절 증진은 어린이들이 공동활동을 조정하게 함으로써 자기-조절을 훈련하도록 하

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교사나 어린이 주변의 성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도움과 조절에서 떠나야 한다. 성인들의 능동적인 철수는 어린이들의 자기 조절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정신 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

비고츠키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활동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나 실제로는 그들 안에 사회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고등 정신의 기능들은 원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습득된 것이며, 이것이 후에 내면적 정신의 과정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의식의 사회적인 면은 일차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것은 파생적이고 이차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인지의 사회적인 국면이 개인적인 국면으로 전이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고츠키는 이것을 ‘정신의 도구들’ 또는 ‘신호들’이라고 본다. 사회적, 심리적 국면들의 기능간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신호들’과 ‘정신의 도구’들은 세심한 기억 보조 기구, 예술 작품들, 글, 표, 그리고 지도 등이며 이들 가운데 중요한 정신의 도구는 인간의 표상적 체계인 언어라고 보았다. 보드르바와 레옹은 언어란 다른 도구의 획득을 촉진하며 여러 정신적 기능을 위해 사용되므로 기초적인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 (Bodrova & Leong, 1998: 162-163).

언어가 정신적 기능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최근의 많은 이론들에 의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고츠키의 생각은 여타의 이론들이 신호(언어)가 생물학적으로 주어졌거나 개인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입장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본다. 그는 신호(언어)의 사회적 기원을 다음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언어와 다른 표상적 수단들은 생활의 사회적 방법을 구축하려는 집단 공동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화 집단의 사회 역사적 산물이다. 둘째, 언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언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의사소통 내지는 사회적인 접촉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인 영향 이후에야 비로소 언어는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본다(Berk & Winsler, 1995: 38) 이와 같은 비고츠키의 견해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말의 최초의 기능은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 접촉을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최초의 말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다. 이것이 사회화되었다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이 말이 처음에는 비사회적(nonsocial)인 것이었으며, 변화와 발달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social)인 것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Wertsch, 1998: 132)

언어를 통한 기능의 사회적 국면으로부터 개인적 국면으로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두 살된 유아와 교사가 함께 퍼즐을 맞출 때, 두 살 된 유아는 교사와의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노란 조각을 찾아보겠니?, 그래, 그 조각이 잘 맞을 때까지 돌려보아라” 라는 교사의 언어를 통하여 퍼즐하는 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때 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사와 공유하게 되는 경험은 사회적인 국면이며 교사의 언어를 통하여 퍼즐하는 법을 학습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고츠키는 정신의 발달에 있어서 언어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국면으로부터 개인적인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형태의 인지를 이루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IV.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의 기독교적 조명

비고츠키 이론의 기독교적 조명을 위해 먼저 비고츠키 이론의 공헌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이론의 기독교적 비판을 하려고 한다.

1. 비고츠키 사회 문화적 발달이론의 공헌

비고츠키이론의 공헌은 과제 수행 시 유아를 돕는 방법, 유아를 평가하는 방법, 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노경숙 · 황운세, 1999: 8-10) 등이라고 언급하거나 역동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강조(김애경, 1997: 109-113),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강조, 진단적 테스트의 실시(박진희, 1993: 408-414) 등이라고 주장을 한다. 여기서는 이들 가운데 공통된 부분인 유아를 평가하는 방법과 상호작용의 강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지대(ZPD) 개념은 아동의 현재능력 수준에서부터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수준까지의 영역을 말한다. 그는 교육이란 아동의 현재의 능력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인지발달의 토대 위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동이 과제를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수준보다 위의 수준에서 중재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현재 발달의 상태와 발달의 가능성을 구분하였으며 현재의 발달상태보다는 발달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지능검사는 현재의 발달상태와 발달의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재의 발달상태만 보고 발달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여기에 대해 비고츠키는 이러한 지능검사는 아동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피험자가 할 수 있는 수행의 최적의 수준과 관련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Wertsch, 1998: 67) 반면에 근접발달지대 개념과 관련한 진단 검사는 모든 참가자에게 분류된 힌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처음의 수행보다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학습의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고츠키의 이러한 주장은 고정된 지능검사의 결점을 지적하고 학습잠재력의 역동적인 평가²⁾를 강조한 점에서 교육에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비고츠키이론의 다른 공헌은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혼자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또래나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기존 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행위와 인성의 사회화의 측면에서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인지와 지적학습에 대한 면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부여하지 않았으며(Wertsch, 1998: 326)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으로서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강조되었다(노경숙·황윤세, 1999: 11). 그러나 비고츠키는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인성의 사회화측면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아동은 또래나 성인과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상호작용적 역할을 가역할 수 있으며 이것의 발전으로 인해 근접발달지대의 창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로 팔린스카(Palinscar)와

2) 실제로 역동적 평가는 정적검사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검사-교수-재검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검사과정 자체에 교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노경숙, 황윤세, 1999)

브라운(Brown)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팔린스카와 브라운은 공식적으로는 학습 무능력자로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교사가 읽기 이해력에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한 7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상호활동적인 학습게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지도되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게 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 기술 훈련의 효율성이 증명되었다(Brown, Palinscar, 1986: 110-115). 또한 포르만(Forman)과 카즈든(Cazden)도 학습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박진희, 1993: 411). 비고츠키의 이와같은 주장은 기존의 행위와 인성의 사회화를 위해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고츠키 이론과 그의 공헌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비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둘째, 교사가 아동의 발달 수준을 적절히 파악하고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민감하여 비계설정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과 교사의 비율이 낮아야 한다. 또한 아동들이 소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이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넷째, 교수 학습활동을 선정할 때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고츠키 이론의 기독교적 비판

제 2장에서 비고츠키이론의 사상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고츠키는 자신의 사상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마르크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이론은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의 정신적 특성 역시 외부 환경에 작용하고 외부적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모든 특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비고츠키도 지식은 사회에서 만들어지며 인간의 사고의 발달은 바로 지식의 근원인 사회와의 접촉을 통하여 발달됨으로 인간의 인지 발달을 위하여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환경이라는 말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지배

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 조국이 주어지는 것, 언어와 풍습 등이 주어지는 것 등은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환경이다. 어린이가 학습을 할 때 다양하고 좋은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때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있으며 사회적인 환경이 인간의 정신 형성에 도움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사회)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지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사적 입장에서도 입증된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환경을 지배한다는 말에서 발생한 것이다(최일운, 1972: 228) 인간의 의식이 환경을 규정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 창 2: 19에 나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그의 지식을 사용하여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아담 이외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말하는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이었으며 그 때 이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의식을 사용하여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다. 이는 의식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비고츠키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보편적 구조의 실재를 부정하는 반근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인식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전경갑, 1993: 78-79)

의식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비고츠키의 생각은 마르크스의 역사의 원동력은 생산력이며 생산력은 물질이며 그 물질에 의해 사회는 구성되며 인간의 존재는 물질에 의해 구성된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만물을 지배하는 힘은 물질이라는 견해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견해와 상치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물질이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규정은 이미 많은 학자에 의해서 옳지 않은 규정이라고 비판받아왔다(최일운, 1972: 227 · Lyon, 1987 · Fekkema, 1960) 따라서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 비고츠키의 이론은 궁극적 실재이며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이 깔려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고츠키는 어린이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대단히 중요

한 부분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인간의 자발적 의도나 창의적인 계획이 인간의 행동을 만들기보다는 사회라는 구조에 의해 인간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는 어린이의 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되고 현장에서 실시되어 온 어린이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발달의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과 교수를 사회적 의미의 개념획득의 주요 원천으로 봄으로써 발달을 일종의 사회화로 파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애경, 1997: 109) 보드로바와 레옹(Bodrova & Leong, 1998: 66)은 비고츠키가 학습에 있어서 외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어린이가 학습을 위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인간의 사고를 하나의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생성되고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낳게 하며, 이로 인해 인간이 창조적이고 자율적으로 세계를 건설하며 변혁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받는다(송준석 · 이철배, 1994: 144-145) 이처럼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비고츠키의 이론은 비인본주의적이라고 비판받을 뿐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고유하게 만들어졌다. 창세기 1: 26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자유의지를 가진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의미한다(Murray, 1991: 71-73)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하여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효과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다. 비고츠키의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는 마르크스의 인간이란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저급한 존재라는 사상적 배경에 근거한다.

V. 결론

앞에서 비고츠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비고츠키 이론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고찰과 비고츠키 이론의 문화적 배경을 다루었다.

그리고 비고츠키 이론을 발달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발달과 근접 발달 지대, 정신 발달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고츠키 이론의 기독교적인 조명을 위해 이 이론의 공헌점과 기독교적인 비판을 해 보았다. 비고츠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나 마르크스 이론 자체가 너무 방대하여 그의 이론 가운데서도 유물사관만을 요약하여 소개하는데 그쳤으며, 비고츠키 이론도 대단히 방대한 분량이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에 벅찬 일이었다. 또한 비고츠키 이론의 기독교적 조명에서 비고츠키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고츠키 이론이 인식론과 인간관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기독교 교육에도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비고츠키이론의 기독교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은 골 1:16의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선포하고 있다. 세상에 속한 모든 학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와 정신세계의 본성과 원리를 규명해 낸 것이며 이것에 의해 사회의 여러 체제와 질서가 만들어졌으며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비고츠키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어린이들의 발달의 원리 역시 비고츠키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부여하신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을 사회적인 측면과 연결하여 연구해 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의 일부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성을 가지고 발견해 낸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는 비고츠키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발견해 낸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나 자연 세계에 부여한 원리일 수도 있으나 그 원리의 배경이 성경의 사상과는 거리가 멀거나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고츠키 이론의 기독교적인 조명을 통해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 교육에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시도할 수 있다.

첫째, 비고츠키는 학습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의 중시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환경의 중시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환경은 매우 열악함을 볼 수 있다. 우선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

지 않으며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도 일반 교육과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일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반면에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책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가정의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독교적인 교육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역시 몇 몇 큰 교회나 개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예를 들면, 유아를 교육하는 전임 사역자가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으며 물리적 환경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지 않다). 지역사회는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좋은 환경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가정, 교회, 교육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환경이 아동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에서의 단편적이고 한정된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모든 시공간의 환경이 아동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고츠키는 아동들을 근접 발달 지대 안에 있는 혹은 그들의 독립적 기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계속 줄 때 아동들이 자신들의 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의 학급 구성은 교육의 대상을 같은 연령과 발달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혼합 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함으로써 나이가 어린 아동이 자신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 도움과 안내를 받음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교사나 성인의 역할이 중시되며 이를 위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세대간의 역할 교육의 강조를 시사한다. 이는 이미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진 것이다(삿 2:6; 잠 20:16; 렘 35:18-19). 그러나 실제로 교사나 성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들이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는 흔치 않다. 예를 들면, 주일 학교 교육 부분에서 아동들의 근접 발달지대를 인식하고 그들의 현재의 발달 수준보다 위의 수준에서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는 교사나 전임 사역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아동들에게 신앙의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비고츠키

키의 이론에 근거하여 모색할 수 있는 교사나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언어가 인지보다 먼저라고 주장하는 비고츠키의 이론은 기독교적인 사고를 언어를 통해 형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적용 가능하다. 언어가 담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며 구체화시킬 수 있다.

넷째, 근접 발달 지대의 개념은 교사가 평가를 할 때 어린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그가 다양한 도움을 받았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 후 그것을 어린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때 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록 어린이가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고 대답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어떤 다양한 활동으로 자극을 주면 자신이 희미하게 지니고 있던 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호킨스(Howkins)는 어린이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그 내용을 지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어찌면 대답해야 할 말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Howkins, 1969: 70)함으로써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비고츠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비고츠키의 효과적인 비계설정을 위해 교사나 어린이 주변의 성인들의 따뜻하고 언어적인 칭찬의 강조는 기독교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수용적이며 따뜻한 분위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기독교적인 환경과 인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엔지(Ng)와 토마스(Thomas)도 따뜻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는 어린이들의 기독교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Ng & Thomas, 1981: 98)고 보았다.

과거 1960년대부터 교육의 주류를 이루었던 뼈아제 중심의 인지발달이론이 너무 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결점을 대안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비고츠키의 이론이라는 논리 아래 과거 30년 전부터 비고츠키의 이론이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반 이론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기독교 교육의 특성상 비고츠키의 이론은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분석, 조명되어져야 하며 적용되어져야 한다. 부족하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고안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애경 (1997),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에 관한 고찰과 그 교육적 함의,” 『원광대학생활지도연구』, 18.
- 노경숙· 황윤세 (1999), “유아과학교육의 구성주의적 접근: 비고츠키, 신피아제 이론을 중심으로,” 『선양대 논문집』.
- 박진희 (1993), “비고츠키의 발달이론과 그 교육적 시사점,” 『경주전문대논문집』, 7.
- 박형준 (1999), “비고츠키의 학습에 대한 사회 역사적 관점이 학교교육과 사회과교육에 주는 의미,” 『시민교육연구』, 28, 100.
- 송준석· 이철배 (1994), “학교교육의 구조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선대 교육연구』.
- 전경갑 (1993),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부산수대 논문집 49』.
- 최일운 (1972), 『헤겔과 대비한 마르크시즘의 비판』, 서울: 형설출판사.
- Berk, L. E. & Winsler, A. (1995), 홍용희역, 『어린이들의 학습에 비계설정』, 서울: 창지사.
- Bodrova, E. & Leong, D. J. (1998),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교육』,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Brown, A. I., Palinscar, A. S.(1986), *The academic performance of minority children: A new perspective*. N. J. : Erlbaum
- Fekken, M. (1960), *Christian philosoph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Christian Schools Service, Inc.
- Howkins, K. G. (1969), *Religious thinking and religious education*, London: Tyndale press.
- Lyon, D. (1987), 박영호 역, 『마르크스 생애와 사상 평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 Murray, J. (1991), 박문재 역, 『조직신학I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Ng, D. & Thomas V. (1981), *Children in worshipping community*, Atlanta: John Knox Press.
- Wertsch, J. V. (1998), 『비고츠키: 마음의 사회적 형성』, 서울: 정민사.

ABSTRACT

**A Christian perspective on Vygotsky's theory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Hee-Young Jeoung

Vygotsky's theory is a socio-cultural theory having a great influence on modern early childhood education. One of the core thoughts in his theory is "a human being is a product of the social and cultural world." The basic principles of Vygotsky's theory are as follows :

Firstly, as a development closely related with a social context, the mental activity of all human beings are made from a contact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which is a source of the knowledge.

Secondly, not the actual level but the potential level of development is important whe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with the concept of ZPD(zone of proximal development) is being measured.

Thirdly, the role of language is important in mental development. Language is an instrument and is important in making a concrete form of recognition through the process from inter-psychological aspect to intra-psychological aspect.

The application of Vygotsky's theory on the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s as follows: firstly, the environment for Christian education is important. Secondly, the concept of ZPD presents an advantage of the mixed age in class. Thirdly, a possibility of verbal education using praise and prayer in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s suggested.

The Vygotsky's theory in which the human consciousness is determined by environment includes an atheistic thought. And it makes young children

passive beings. Nevertheless, the Vygotsky's theory has to be continuously analyzed and illuminat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for the efficiency of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ey words: Vygotsky, socio-cultural theory, mental activity, ZPD, perspective